

개인보다는 팀워크로 ‘생명의 근원’ 찾는 기쁨

글_ 변현정 한양대학교 미생물학교실 의생명공학 박사과정 bhj1052@ihanyang.ac.kr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였지만, 그 근원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인간의 지적 욕구가 생기면서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명이 발달했으며, 산업과 함께 과학 역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왔다. 생명에 대한 신비는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지금도 어디선가에는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중심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 우리의 몸은 신기하게도 병원체 등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균에 노출되었어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육된 세포가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으로 몸 안에 침입하는 병원체 등과 싸워야 할 세포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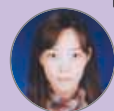
야 할 세포가 결정된다. 이처럼 중요한 갈림길에서 한 쪽이 선택돼 운명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이러한 세포들을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었지만, 이런 선택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잘 교육된 세포라 해도 혼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듯, 실험실내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연구하는 동료들과 스승이 없다면 더 넓고 깊은 학문에 대한 발전이 힘들었을 것이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연구해야 하는 사람들과의 팀워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과학 분야에서 한시라도 빠르게 접해야 하는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험실은 서로를 존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실험실내에서만 아닌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지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욕구도 채워질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실수였음을 깨닫고 다른 길을 선택해 돌아왔더라도 그것에 책임을 다 하는 것이 목적지에 얼마만큼 빨리 도달했느냐 보다 더 중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 자신이 이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길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원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을 것이

다. **ST**



글쓴이는 서울여자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 후 한양대학교 의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